

‘사람을 죽이는 소, 내면을 파괴하는 유전 악’

사람을 죽이는 소,
내면을 파괴하는 유전 악

²⁸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들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²⁹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들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³⁰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³¹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출21:28-31)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유전 악 (*hereditary evil*) 때문에 저세상에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런 그의 본성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실제 악 (*actual evil*) 때문에, 그리

고 그 결과 그 자신 실제로 살면서 그 유전 악에 자신을 어울리게 한 만큼 (*as he has appropriated to himself*)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들의 유전 악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악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자신들한테 있는 지옥에서 건져져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C.2 308)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2308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one ever suffers punishment in the other life on account of hereditary evil, because it is not his, and therefore he is not to be lame for being of such a nature; but everyone suffers on account of the actual evil which is his own, and consequently for so much of the hereditary evil as he has appropriated to himself

‘사람을 죽이는 소, 내면을 파괴하는 유전 악’

y actual life (as before said, n. 966). It is not therefore for the sake of punishment that the little children on becoming adult are remitted into the state of their hereditary evil; but that they may know that of themselves they are nothing but evil, and that it is of the Lord's mercy that they are taken away from the hell that is with them into heaven;

이는 오늘 창세기 18장 주석 클로징 부분, ‘저세상에 있는 어린이들의 상태에 관하여’(CONCERNING THE STATE OF LITTLE CHILDREN IN THE OTHER LIFE)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로부터 인간의 타고난 성품을 논할 때, 보통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선설(性善說)이고, 하나는 성악설(性惡說)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맹자(孟子, BC.372?-BC.289?)입니다. 맹자는 사람은 본래부터 선한 성품으로 태어나는데 환경이 좋지 않거나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선설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람은 완전히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선하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욕망에 미혹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자(荀子, BC.298?-BC.238?)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타고나기를 이기적으로 태어나고, 또 손해 보기를 싫어하며, 쾌락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내재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며, 그러므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선한 심성과 악한 심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선설의 견지에서는 선한 성품을 보다 근원적이라 보았고, 성악설은 악한 성품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교회 가르침에서는 어떨까요? 새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은 성악설입니다. 새 교회에서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아와 유전적 악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선보다

‘사람을 죽이는 소, 내면을 파괴하는 유전 악’

는 악에 기울기 쉬운 성향으로 태어난다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는 자아와 유전 악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가르칩니다. 그 단서란, 사람이 아주 어릴 때, 주님께서 그 내면에 심어놓으시는 선하고 진실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자아가 아직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상태일 때, 주님께서 인간의 내면으로 흘려보내 주시는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 교회에서는 ‘남은 자’(리메인스, *remains*)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마다 그 안에 이 리메인스라는 것을 두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그로 하여금 자아와 유전 악을 던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아와 유전 악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면, 리메인스는 나중에 주님께서 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더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성선설의 근거가 되는 사단(四端, 선을 싹틔우는 4개의 단서, 실마리), 즉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 자기 안에 불의한 것을 보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인 수오지심(羞惡之心),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是非之心)은 리메인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악설의 관점에서 리메인스는 타고난 악을 제어하는 수단이요 장치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안에는 타고나는 자아가 있고요, 동시에 그 자아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리메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아에 속한 악과 유전 악이, 이 리메인스와 이를 통해 획득한 선과 진리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²⁸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뿔로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하시고요, 그 고기는 먹지

‘사람을 죽이는 소, 내면을 파괴하는 유전 악’

말 것이며, 그러면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것 같지만, 속뜻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구별되는데요, 사람을 죽인 소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원론적인 하나님의 법도라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과, 소의 임자가 형벌을 면하는 것은 예외적인 조항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벌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벌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이라 하시는데, 말씀에서 ‘소’는 본래 선을 뜻합니다. 아마 소가 유순한 짐승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악한 애정이나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소가 뿔로 사람을 받아 죽이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악한 욕망이 진리와 선을 파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남자’**는 진리를 뜻하고요, **‘여자’**는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 내면에 있던 선과 진리가 파괴되

고 맙니다. 악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그로 인한 악이 의지와 이성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던 선과 진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 거짓과 진리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할수록 우리 내면에 선하고 진실한 것이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가 남자와 여자를 뿔로 받아 죽이는 것입니다.

※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가령 잠들기 전, 아주 잔인하거나 음란, 괴기스러운 웹툰을 재미있거나 궁금하다고 한두 편 가볍게 때리고 자야지 하는 것이라든가, 운전할 때, 상대방의 무슨 돌발 상황에 그만 무슨 욕을 내뱉는다든가 하는 것에서부터 제법 큰 것들, 예를 들면, 나라와 민족, 국제 정세 등을 논하며, 아무개는 어떻고, 무었은 어떻고 하며 마치 무슨 정론을 펼치듯 비판과 정죄를 서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우리 안에 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이라는 상황은 시도 때도 없이 늘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사람을 죽이는 소, 내면을 파괴하는 유전 악’

서 죽일 것이요’는 무슨 뜻일까요? 악한 욕망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버리되 진리를 가지고 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돌’은 진리를 뜻하며,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욕망을 용인하면, 결국 선과 진리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소를 쳐 죽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닥칠 징벌입니다.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고기’는 자아와 유전 악에서 비롯한 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는 자아 사랑에서 나오는 악을 자기 생명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하신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주님의 생명인 선을 자기 생명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자아의 악이 자기의 생명으로 변할까요? 어떤 행동이 악인 줄 알면서 욕망을 이기지 못해 그 일을 할 때, 그때 그 악이 우리의 생명이 됩

니다. 모르고 악을 행하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행하면 그때는 그 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즉 일단 알았으면 절대 죄짓지 않는 사람은 벌을 면합니다. 소의 임자가 벌을 면할 것이라 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의 ‘임자’는 곧 사람의 애정을 다스릴 의무가 있는 속 사람의 지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 욕망이나 애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릴 지성을 주시는데, 그 지성은 속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의 지성은 곧 사람의 애정을 다스리는, 곧 사람의 주인인 셈입니다. 다만 속 사람의 지성이 곧 사람의 악을 보고도 그것이 악인 줄을 모를 때는 벌을 면합니다. 여기 ‘벌을 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고 죄를 지을 경우에는 속 사람의 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임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성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요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출21:28-31

‘사람을 죽이는 소, 내면을 파괴하는 유전 악’

는 이렇게 말합니다.

²⁹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며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기서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들이 어떤 종류의 악한 애정이나 욕망을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기기 어려운 유전적 악습이 있습니다. 소가 습관적으로 뿔로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즉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속 사람의 지성입니다. 속 사람의 지성이 악인 줄 알면서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욕망이 소의 뿔처럼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욕망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지 못하고 계속 욕망에 끌려다

니게 되는데, 그때 ‘임자도 죽일 것이며’라 합니다. 소의 임자를 죽이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저절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 사람의 지성이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의 임자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보고도 진리인 줄 모르고, 악을 보고도 악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지성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면 진리와 선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결국 지성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자기 안의 소를 단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재앙입니다. 지성이 죽은 사람은 거듭날 수 없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30절에서는 그 기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³⁰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소, 내면을 파괴하는 유전 악’

여기서 속죄금은 죽었던 영적 생명을 되찾기 위해 신앙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한 대가, 또는 속죄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 ‘참된 기독교’(TCR, *True Christian Religion*) 528번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검토하여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악을 분명히 보고, 그 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세요. 죄를 고백,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악을 보고 주님께 고백하려면 철저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주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고통의 정도는, 알면서 죄를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기간만큼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견딜만합니다. 그런 치열한 회개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기 위해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 몸값이요 속죄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일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유전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모든 종류의 교만과 탐욕, 쾌락을 좇는 마음들이 바로 유전 악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속 삶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들이 보입니다. 유전 악과의 싸움은 참으로 질긴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전 악에서 비롯된 욕망의 위력을 소의 뿔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기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애정이나 욕망이 올라 때에 그것을 단숨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용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습관이 되

출21:28-31

‘사람을 죽이는 소, 내면을 파괴하는 유전 악’

어 길어지면 재앙이 된다 경고합니다. 말씀에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버릇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으면 소의 임자는 죽임을 당한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유전적 악습을 어떻게 한 번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⁴⁰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⁴¹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던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9:40-41)

아멘

원본

2018-01-14(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2-19(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